

# “세계에 여수 알리기…이보다 즐거운 여행 없어요”

## 2012 세계박람회 해외 홍보 활동 서포터즈 ‘필 그림’

“유럽인들에게 한국을 알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한국을 이해하고 미소짓는 유럽인들을 보며 느끼는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를 기원하며 자발적으로 해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 드립엑스포 서포터즈 필 그림(Feel-grim) 이해진(여·24·백석대 4년)·김정우(수원대 4년)씨.

필그림은 지난달 21일 영국 옥스퍼드를 시작으로 내달 4일까지 45일간의 일정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 13개국을 둘며 세계속에 한국 그리고 여수를 알리고 있다.

88년 동갑내기인 이들은 대학생들의 마지막 추억으로 유럽여행을 준비하던 차에 보다 의미 있는 여행을 만들어 보고자 여수 세계박람회 홍보에 선뜻 나섰다.

직접 작성한 홍보기획안을 조직위원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 유럽 홍보여행길에 올랐다. 마스코트 인형과 엽서, 현수막 등을 조직위원회로부터 지원받았지만 경비는 아르

바이트 등을 통해 직접 마련했다.

방문하는 도시마다 에피소드를 정해 여수 세계박람회 마스코트인 여니와 수니 인형 옷을 입고 유럽인들에게 프리허그를 하기도 하고, 여수 세계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The Living Ocean and Coast)을 설명하며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를 소개하기도 한다. 또 유럽인들에게 성공기 원 앱서 2012장과 사진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타국에서 홍보여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숙소 예약이 안 돼 차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고, 짐가방의 바퀴가 부서져 60kg에 달하는 무거운 짐들을 직접 들고 다니기도 했다. 한국을 알지 못하는 유럽인

들을 만나면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든다.

이해진씨는 “여니, 수니 인형 옷을 입고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나하오’, ‘곤니찌와’라며 먼저 인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홍보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힘든 만큼 느끼는 보람도 남다르다.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며 무슨 일을 하느니 묻는 유럽인들도 있다. 이들의 여행 이야기를 듣고 미소를 지으며 코리아를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 그동안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기도 한다.

“저희는 홍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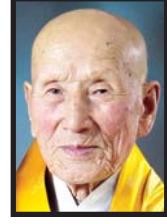
왼쪽부터 김정우, 이해진, 김범석씨.

도 아니고, 홍보관련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아닙니다. 또한 이런 홍보활동을 해본 경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속에 한국을 알리면서 저희는 보다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습

니다. 유럽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작은 기쁨을 느끼고 이로 인해 한국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됐으면 하는 게 저희의 작은 소망입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대한불교 선각종 종정 영담 큰 스님 입적



대한불교 선각종 종정인 정법(正法) 영담(映潭) 큰 스님이 지난 14일 강진 자비정사에서 입적했다.

영담 스님은 1914년 통영에서 출생해, 1949년 백양사 만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고 납문 대복사, 지리산 실상사 선방에서 서경보스님 등과 함께 절진 수행했다. 강진 자비정사의 조실로 주석한 스님은 20여 명의 고아들을 거두어 교육하면서 후학양성에 매진하다 2000년 대한불교 5대종단의 하나인 선각종 초대종정에 추대됐다.

영결식은 18일 오전 10시 선각종 총본산 음천사에서, 다비식은 화순 도원사 연학대에서 봉행된다. 문의 017-628-61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장흥해운, 지역 인재육성 장학금 1억원



(주)장흥해운(사장 황영숙)은 최근 지역 인재육성을 위해 싸달라며 (재)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사랑나눔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

〈장흥군 제공〉

## 우진이엔지 군산에 장학금 1000만원



(주)우진이엔지(대표 서정범)는 최근 지역인재육성을 위해 군산 교육발전진흥재단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 “봉사는 행복의 도돌이표 같은 것”

### 복지관서 음악 봉사 진도 ‘그루터기’ 채형진씨

“제 취미는 봉사 활동입니다.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건, 그 어떤 융합형 이상의 행복입니다.”

사회복지관, 아동양육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찾아 음악 봉사를 실천하는 진도 그루터기 봉사단 공연부과장 채형진(43)씨.

그는 봉사는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준다고 말했다.

진도고 1학년 때 학교 밴드부 활동을 계기로 음악을 시작한 채씨가 봉사 활동에 나선 건 지난 2006년 11월부터다.



채씨는 “노인복지관 등 시설을 방

문하면 어르신들이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는 등 기뻐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봉사를 수 있어 늘 감사할 뿐”이라고 말했다.

채씨는 음악의 힘을 굳게 믿는다.

“장애인과 노인들이 박자와 장단에 맞춰 노래 부르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는 그는 결이로운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한 요양원 공연 때 훨씬어에 물을 의지한 채 전혀 의식이 없는 환자가 색소폰을 연주하는 동안 ‘손가락을 움직였다’고 요양사가 흥분해 전해 줬다”면서 그때 짜릿한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음



악봉사 외에도 접수리, 도배 봉사, 복지시설 이·미용 봉사 등 소외된 이웃들과 늘 함께 하고 있다. 주말이면 낚시와 등산을 취미로 즐겼던 회원들도 이제는 봉사를 취미로 갖게 됐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 美 LA비평가협회 여우주연상 김혜자

### “외국서도 인정받아 뿌듯”

“저의 연기를 통해 사람들 마음이 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머니’ 역할로 너무나 친숙한 배우 김혜자씨는 연기자로서의 목표나 바람이 있다면 이런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영화 ‘마녀’의 여주인 공역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영화비평가협회(LAFCA)의 여우주연상을 받으려고 LA를 방문, 지난 15일(현지시간) 한인타운에서 수상 소감을 밝혔다.

김씨는 이날 저녁 LA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LAFCA 영화상 시상식에서 아시아계 배우로는 처음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김씨는 “‘마녀’를 하면서도 행복했다”면서 “이 영화에 대해 한국에서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니까 서운하기도 했지만 외국에서 인정해주는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의외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

### 임원식 前 전남일보 사장

### 시집 ‘공룡발자국’ 출간

시, 수필, 소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혼연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임원식(70) 전 전남일보 사장이 최근 다섯 번째 시집 ‘공룡발자국’(시문학사 펴냄)을 냈다.

이번 시집에는 ‘뼈꾸기’ 소리에 꽂았지 고’, ‘산새는 어디로 갔을까’ ‘산수유 피디’ 등 5부로 나뉘어 맑고 깨끗했던 유년 시절을 꿈꾸며 하여 자연과 더불어 인생 삶이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는 80여 편의 시를 수록했다.

광주세무서장, 광주지방국세청 국장 등을 역임한 임씨는 2003년 조선대에서 ‘신춘문예’의 문단사적 연구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조선대, 호남대 초빙교수, 온누리태양광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임원식은 “제가 출판하는 책마다 저마다

제작자와 출판사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수완지구에 ‘세계로365병원’ 개원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에 ‘세계로365병원’이 개원했다.

광주지역의 신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수완지구에 관찰전문병원 세계로365병원이 지난 15일 개원식을 갖고, 노인 관찰 질환자들의 관찰업뿐만 아니라 관찰 전 분야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진료에 들어갔다.

세계로365병원은 1995년 지역 최초 정형외과 전문병원 동아병원을 개원한 관찰박사 정재훈 원장이 개원한 관찰전문병원이다.

관찰박사 정재훈원장은 “365일 환자와 함께 할 것이며 삼김의 자세로 열심히 진료해 세계적인 병원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

##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 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20-2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062) 2200-628 FAX (062) 222-4938, 222-4918

### 화족

▲양재호(전남대 교수)·김여애씨 아들 환서(군의원)군 김동희(전남대 교수)·김민희씨 딸 미름(국립의료원 의사)양=22일(토) 오후 1시 30분 교원체육관 3층.

▲이영동(전 대한화재 보험사장)·안영옥씨 자남 광원(지과 개업의)군 김혁진(광주대 총장)·송숙남씨 장녀 혁진(의상 디자이너)양=23일(일) 낮 12시 30분 광주 호텔무등파크 4층(컨벤션홀)

▲송자섭(전남도청 도로교통과장)·류양희씨 장남 상현(조대병원 피부과)군 조충환(덕흥중합건설㈜ 대표)·황경자씨 장녀 우리(광주은행)양=23일(일) 오후 1시 풀리데 이안광주 호텔 3층(컨벤션홀)

▲김용식·최채숙씨 장남 찬중군 나간체(전남대 사회화과)·박명순

### 동창·동문회

▲유은학원(광주상고·여상고·동서고·동성중·동성여중) 충동문화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회장 손형섭)=21일(금) 오후 6시 30분 삼성회관 3층(무궁화홀) 062-361-2680.

▲여성발전센터 무료 상담=가정폭력, 성폭력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시 062-1366.

▲어린이재단 광주가정위탁지원센터 일반위탁가정=부모의 질병,

가출,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반위탁가정을 모집. 062-351-1206.

▲광주물새 클럽 수영 동호회원=수영 무료로 지도해주며 30세 이상, 북구 거주자 환영. 011-602-2278.

▲광주대 평생교육원 수강생=독서치료사·매주 월요일 오후 7시~10시, 방과후아동지도사·매주 화요일 오후 7시~10시, 심리상담사·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시, 강사·시인·아동문학가·심리상담지도사 김성구 박사, 평생교육원 062-670-2167, 2168.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오카리나회원=매주 목요일 주 1회(3개월) 건강타운복지관 1층, 광주시 거주 60세 이상 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062-603-8860~71.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총장로 3가 총파 앞 더비디샵 지하, 라인댄스·살사·차차 등. 010-513-0028.

▲골드원 여성 팝스 종창단=노래에 관심과 자질이 넘치는 여성으로 공동활동이 가능한 분. 문화예술연대 ‘누림’ 011-638-0141.

▲원불교 문화센터 회원=서예, 요가, 다도, 노래교실, 생활영어, 규방공연 등, 쌍촌동 원음방송국, 062-232-7223~4.

▲광주 두암 태권도 체육관 여성 요가부=요가를 배우고 싶으신 분 모집. 관광 박성택. 010-363-1758.

▲황실 심자수 무료 수강생=��선·시계·배·주차증·방식·액자·지갑·핸드폰 채제 등 무료 교육. 062-512-4000, 062-528-8500.

▲광주시 생활체육아구연회회 회원=야구에 관심과 자질 있는 30세~40세의 사회인(특히 투수, 포수) 011-609-9433, 010-261-7787.

▲맘보뮤엔터 실사동호회 회원=총장로 3가 총파 앞 더비디샵 지하, 라인댄스·살사·차차 등. 010-513-0028.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총장로 3가 총파 앞 더비디샵 지하, 라인댄스·살사·차차 등. 010-513-0028.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총장로 3가 총파 앞 더비디샵 지하, 라인댄스·살사·차차 등. 010-513-0028.

▲(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광주시지부 베트남 참전 전우·회원=총장로 3가 총파 앞 더비디샵 지